

## 제211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 일본전후문학과 문화냉전 - 록펠러재단의 창작펠로우십 사례를 중심으로

강사 : 김지영(金志映, 성균관대 성균일본연구소 연구원)

시간 : 2017. 06. 13. 화. 12:00 - 14:00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룸

2017년 6월 13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룸에서 제211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15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전후문학과 문화냉전 - 록펠러재단의 창작펠로우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성균일본연구소 연구원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김지영 연구원은 동경대학교 총합문화연구과 초역문화과학전공 비교문학비교문화코스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성균일본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김지영 연구원은 본 세미나에서 록펠러재단의 창작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성격과 그 배후의 미일 양측의 의도를 록펠러재단문서관 소장 자료를 통해 규명하고, 유학을 경험한 작가의 사례를 통해 문학 작품 속의 미국 표상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전후 일본의 문학공간에 끼친 미국의 문화냉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후 1950년대에 미국은 대일문화외교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냉전전략으로서 일미문화교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냉전체제하 일미 문화관계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록펠러재단은 다양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의 문학자를 대상으로 일년간의 미국유학을 지원하는 창작펠로우십(creative fellowship)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 아가와 히로유키(阿川弘之), 고지마 노부오(小島信夫), 에토 준(江藤淳) 등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10명의 작가·비평가가 미국에 체재하였다.

록펠러재단 창작 펠로우십은 문학자를 대상으로 1년간의 미국 체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계획과 운영은 미일공동 비공식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였다. 미국측에서는 Charles Burton Fahs와 Gordon Bowels가 일본측은 사카니시 시호(坂西志保)와 야마모토 유조(山本有三)가 중심이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1930년대부터 이어진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의 고립상황에 비추어 일본의 작가에게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이 얻어지는 시점을 통해 인간의 생활이나 성지에 관한 작가의 인식을 넓히는 것이었다. 인선 방식은 비공식운영위원회(사카니시 시호)가 추천을 받아 파스가 면접하여 결정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중요한 특징은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단측에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펠로우에 대한 재단의 지원 방침은 '자유'와 '자주성'을 존중하고 '관대함'과 '친밀함'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 도항도 지원하고, 펠로우 개개인의 관심에 맞추어 계획하고 긴밀한 지원을 해준다. 또한 한 곳에 장기 체재하는 것을 권장하며, 1955년부터는 부부동반을 허가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관대한' 지원을 했는가? 미국측 의도는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것이었으며, 일

본측의 의도는 민주주의화와 미국과 협력한 제2의 근대화였다. 1959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카니시는 일본이 아직 근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서양의 정신을 체험해서 일본 근대화에 일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록펠러재단 창작 펠로우십의 특이성은 오랫동안 현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깊이 영향을 받도록 기획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의 단기 여행과는 차별화된 것이었다. 펠로우십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한쪽에서는 '서양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양자 사이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찬성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에 세뇌 당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험담을 하는 작가들도 있었다. 정리를 하면 창작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일본과 미국의 반공 리버럴 세력이 손잡고 친미반공노선에 입각한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문학에 대한 개입으로서 나타난 것이며, 미국에 의한 냉전하의 문화적 공세가 포스트-강화기의 일본의 문학공간에 깊숙이 개입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학을 다녀온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다. 크게 여행기와 체재기라는 장르와 소설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주인공들이 대부분 일본인들이어서 독자들이 공감하기 쉬웠다. 이것은 미국적인 생활양식 수용에서도 중요한 점이었다. 작품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한 호의적·비판적 묘사 등도 있었다. 김지영 연구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아가와 히로유키(阿川弘之)를 소개하였다. 그의 고향은 히로시마로, 초기 작품의 중심 주제는 히로시마 원폭이었다. 이 작가를 소개하는 이유는 재단측의 보고서에서 작가들을 평가하는 데 그 중에 좋게 평가된 사례였기 때문이다. 『연년세세(年年歲歲)』(1946), 『영삼제(靈三題)』(1947) 등은 GHQ 검열의 영향으로 일부 삭제하거나 자기검열을 하였는데 미국이 등장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마의 유산(魔の遺産)』(1953)은 ABCC(Atomic Bomb Casualty Commission=원자폭탄 상해조사위원회)를 소재로 미국에 대한 강한 비판 전개한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원폭투하의 비인도성뿐만 아니라 동경재판, 전후 헌법 제정,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재무장 요구 등 미국의 전후 일본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 비판하였다. ABCC라는 것은 미국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미국적인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같은 역할도 했다. 히로시마 시민들이 ABCC에 자발적으로 협력을 했는데, 그 요인으로는 ABCC가 당시 가난한 시민들을 풍요로움과 편리함으로 매혹한 점이 있다. 이러한 근대성은 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작품 전체적으로는 '원자폭탄은 완전한 악'이라고 보고 있다. 이후 아가와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생활을 견문한 것을 작성하였다. 여기서는 인종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 2세의 농장을 묘사하여 농장 생산기술의 근대성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초기에는 원폭 이미지가 강했는데 유학 이후 미국에 대한 풍요로운 이미지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국과의 갈등구조가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보여준다.

정리하면 창작 펠로우십을 통해 본 점령기에서 냉전기로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변용하였는가를 볼 수 있었다. GHQ 검열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지도'였다면, 냉전기 문화교류는 일본측 요구에 부응하여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류를 지원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점령기에 '금지하는 미국'에서 냉전기에 '관대함'과 '친밀함'으로 포섭하는 미국으로 변용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작가들이 문학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창작 펠로우십은 강화 이후 미일 문화정책을 충실하게 적용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지영 연구원은 일본 안에서 마치 전후 일본이 냉전체제 외부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흔히 '전후'라는 시대구분을 쓸 때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을 기점으로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 구분을 적용함으로써

냉전이라는 것이 더 부차적으로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 <토론>

질문 : 록펠러 재단이 미국정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록펠러 재단 자체가 문부성과 관련이 있었는지, 또 그 작가들 중에 록펠러 재단이 아니더라도 미국과 소련, 중국 모두 경험한 작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아가와와 『마의 유산』을 거론해주셨는데, 원자폭탄이 아닌 원자력에 대해서 아가와가 남긴 견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자폭탄을 반대한다고 원자력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가 만주와 연관성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 첫 번째로 미국정부와 록펠러 재단에 대해 말하자면, 협력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록펠러 재단 스태프들의 인맥을 보면 국무성이나 CIA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록펠러 재단에 많았고, 파스 같은 경우도 전시 중에 전략 첩보국이라던지 국무성 같은 곳에서 요직으로 있었던 경력 있었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국무성과 록펠러 재단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는 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담당자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각각 담당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 모두 경험한 사람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는 중국에 전시 중에 주둔하긴 했지만 만주국과 연관된 것은 없었고, 원자력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없었습니다.

질문 : 초대받은 일본 작가들이 일종의 우파이지만 특별히 냉전기의 좌우대립에 민감하게 대응했다기 보다는 일본의 주체성을 다시 확립하겠다는, 즉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미국에 예속되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 같습니다. 오오카 쇼헤이도 그렇고 아까 소개해주신 아가와 작가도 그렇고 전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정립이 이들의 과제였던 것 같은데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 이 질문에 덧붙여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할 때 미국이라던가 일본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미국 돈을 받으면 미국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있고, 일본에서 돈 받으면 일본에 호의적으로 발언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가 있잖아요. 이 발표를 들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간주하시고 연구를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일본 사회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하고, 또 작가들을 일일이 분석하셨을 때 증거가 확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오오카 세대에 있어서 서양이라고 하면 중심은 미국이 아닌 프랑스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은 없었지만 서양에 가고 싶은데 이런 기회를 잡지 않으면 서양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유럽을 가고자 했습니다. 펠로우 개개인이 갖는 미국에 대한 의미 다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은 시간제한이 있어서 알기 쉬운 예로 아가와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유학을 갔다 온 작가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